

-ㅂ니다/습니다

격식체 현재

격식을 갖춘 말투로 발표, 안내 방송, 면접, 뉴스 등에서 씁니다. -아요/어요 보다 만들기 쉽습니다. 모음 조화도, 축약도 없고, 불규칙한 어간 종류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ㅂ니다	가다 → 갑니다
받침으로 끝남	-습니다	먹다 → 먹습니다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듭니다
하다 동사	-ㅂ니다	공부하다 → 공부합니다
의문문	-ㅂ니까 / -습니까	가니까? / 먹습니까?
이다	입니다	학생입니다

■ 언제 쓰나요

규칙은 두 줄이면 됩니다.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면 -ㅂ니다를 붙이고, ㅂ은 마지막 음절의 받침으로 들어갑니다. 가는 갑니다이 됩니다. 어간이 받침으로 끝나면 -습니다를 붙입니다. 먹은 먹습니다이 됩니다. 의문문은 다를 까로 바꿉니다: 갑니까, 먹습니까.

이 패턴을 벗어나는 어간이 하나 있습니다. ㄹ으로 끝나는 동사는 이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 만들다는 만듭니다이 되며, 만듭시다가 아닙니다. 살다, 알다, 놀다, 팔다도 모두 같습니다.

이 형태와 -아요/어요 중 무엇을 쓸지는 공손함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입니다. 둘 다 존댓말입니다. -ㅂ니다는 거리감과 권위를 주기 때문에 친구에게 쓰면 농담이나 핀잔처럼 들립니다. 또한 이 어미는 니다로 적지만 ㅂ이 뒤 소리에 동화되어 발음됩니다. 갑니다는 [갑니다]처럼 들립니다.

■ 예문

- 1 안녕하세요십니까? 처음 뵙겠습니다.
- 2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
- 3 어디에서 오셨습니까?
- 4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- 5 저는 회사원입니다.
- 6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

■ 비교

-아요/어요
공손함은 같고 거리감이 다릅니다. 청중이나 고객, 공식적인 자리의 윗 사람에게 말할 때는 -ㅂ니다를, 존중하는 사람과의 일상 대화에서는 -아요를 씁니다.
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(청중에게) / 이제 시작해요. (동료에게)

-(으)십시오
이 말투에 어울리는 격식체 명령형입니다. 일상적인 짝은 -(으)세요로, -아요/어요와 함께 씁니다.
이쪽으로 오십시오. (격식) / 이쪽으로 오세요. (일상)

말투 섞어 쓰기
한국어 화자는 한 대화 안에서 두 말투를 오가며, 격식 있는 이야기 중간에 가끔 -아요를 섞어 부드럽게 만들기도 합니다. 어색한 것은 한 문장이 나 한 생각 도중에 말투를 바꾸는 경우입니다.
감사합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(자연스러움) / 감사해요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(어색함)

■ 주의

- ✗ 이 제품은 한국에서 만듭니다.
- 이 제품은 한국에서 만듭니다.
ㄹ로 끝나는 어간은 -ㅂ니다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 삽니다, 압니다, 뵙니다, 팝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.
- ✗ 저는 학교에 갑니다.
- 저는 학교에 갑니다.
가는 모음으로 끝나므로 -ㅂ니다를 붙이고, ㅂ은 음절 안으로 들어갑니다. -습니까는 받침이 있는 어간에만 씁니다.
- ✗ 친구야, 우리 밥 먹습니다.
- 친구야, 우리 밥 먹자.
격식체 어미는 반말 호칭과 어울리지 않습니다. 말투는 문장 전체에서 일관되어야 합니다.